

일본근대문학·예술논쟁(2)

— <문학과 자연논쟁>·<소설론략논쟁>과 자연 —

정 병 호*

目次

1. 서론
 2. <문학과 자연논쟁>·<소설론략논쟁>과 <상실론>(想實論)의 전개
 3. <문학과 자연논쟁>·<소설론략논쟁>에 있어서 자연이라는 개념의 역할
 4. 이와모토의 문학예술론과 이상주의
 5. 결론
-

1. 서론

일본근대문학사에서 1880년대 후반부에서 90년대로 이어지는 메이지 20년대는 '논쟁의 계절'¹⁾이라는 평가가 손색없을 만큼 수많은 문학논쟁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예를 들어 그 대표적인 것만 언급해도 <문학극쇠논쟁>(文學極衰論爭)·<『우키시로모노가타리』논쟁>(『浮城物語』論爭)·<몰이상논쟁>(沒理想論爭)·<인생상섭논쟁>(人生相涉論爭)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논쟁들은 메이지유신이 일어나고 20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면서 정치소설이나 『소설신수(小説神髓)』 등 그간 소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던 문학적 담론이 본격화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이들 논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범주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하나는 '상(上)의 문학'과 '예술적 문장'의 항쟁²⁾으로 바라보는 경우이다. 이 입장은 쓰보우치 쇼요(坪内逍遙) 이래의 이른바 예술로서의 문학이라는 시각과 계몽주의자 또는 전통적 문학관에 토대한 공리주의 문학관의 대립으로 보려는 관점이다.³⁾ 또 다른 하나는 '상실논쟁'⁴⁾(想實論爭)이라는 평가가 그것인데 이는 당시 일련의

* 전남대학교 전임강사 일어일문과 일본근대문학 전공

1) 越智治雄『近代文學の誕生』(講談社, 1975), 195頁.

2) 前田愛「近世から近代へ—愛山・透谷の文學史をめぐって—」(『講座日本文學』, 三省堂, 1969.4), 4頁.

3) 가타오카 사토시(片岡哲)는 <소설론략논쟁>에 대해 '로안과 젠치 사이의 논쟁이지만 실제로는 이와모토 젠치,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 시마다 사부로(島田三朗), 오자키 유키오(尾崎行雄) 등 이전의 민권론 사상가, 정치가가 가지고 있었던, 문학을 정치적·교육적인 방향으로 이용하여 국민을 교화하려는 사고방식과, 로안, 모리 오가이, 이시바시 닌게쓰 등이 문학자의 입장에서 문학을 독립된 것으로 그 존재가치를 인정시키고자 하는 사고방식의 대립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内田魯庵・その文學意識の出発点—『小説論略』論爭を中心として』, 『綠岡詞林』3号, 1976. 12, 35頁).

4) 十川信介「文學と自然—想實論をめぐって—」(『日本近代文學』第7集, 1967), 1頁.

논쟁을 ‘실’(實)이나 ‘상’(想)이나, 즉 리얼리즘에 토대한 현실의 재현이나 아니면 현실을 초극한 작자관념 또는 이상의 창조나 라는 틀 속에서 당시의 논쟁을 보려는 시각이다.⁵⁾

메이지 20년대 문학논쟁의 성격을 이렇게 위치지을 경우, 이러한 문학논쟁의 도화선이 된 것이 바로 1889년 『여학잡지』(女學雜誌)를 무대로 한 다음의 두 논쟁이다. 하나는 이와모토 켄치(岩本善治)와 모리 오가이(森鷗外) 사이의 이른바 <문학과 자연 논쟁>(文學と自然論爭)이며, 또 다른 하나는 이와모토 켄치와 우치다 로안(内田魯庵) 사이에 있었던 <소설론략논쟁>(小説論略論爭)이 그것이다. 이들 논쟁이 메이지 20년대 문학예술논쟁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은 <문학과 자연 논쟁>의 경우 이와모토의 실(實)의 입장 및 도덕주의적 주장이 오가이의 상(想)의 입장 및 미문학적 주장과 대립하였고, <소설론략논쟁>의 경우 이와모토의 이상주의 및 도덕적 입장이 우치다 로안의 리얼리즘 및 순문학적 입장과 대립하는 도식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이 논쟁들은 불과 2개월 정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이루어졌지만 두 논쟁에 있어서 한쪽의 측이었던 이와모토의 주장에 대한 평가는 극단적으로 상이한 것이었다. 즉 <상실론>(想實論)이라는 문학사적 틀에서 볼 때 두 논쟁에서 보인 이와모토의 주장이 ‘실제파(實際派)적·자연파(自然派)적 발상’에서 ‘이상파(理想派)로, 또는 ‘사실파(寫實派)에서 ‘극단 이상주의’⁷⁾로 변화해 가면서 논리의 동요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논리의 동요와 더불어 이와모토의 문예론이 협소한 윤리적 문맥에 토대하고 있다는 점도 항상 비판의 대상⁸⁾이 되곤 하였다.

그러나 메이지 20년대 일본문학계의 제논쟁의 지향점을 전경화(前景化)시키고 있는 이와모토의 문학론을 단지 ‘실’(實)에서 ‘상’(想)으로 회절(回折)하였다고 간단히 단언해 버릴 수 있는 것일까? 나아가 위의 두 논쟁에 보이는 도덕주의의 경우도 단지 협소한 윤리에 토대한 문학관으로만 치부해도 무방한 것일까? 실제 지금까지 『여학잡지』 또는 이와모토 켄치의 문학론을 논할 때, 이 두 논쟁에 보이는 문학관만이 문제가 되었을 뿐이며 그가 『여학잡지』에 남기고 있는 여타의 예술론이나 문학론까지 확대하여 고찰되지는 못하였다. 또한 이와모토는 <자연>이라는 개념의 해석이나, 또는 그와 관련하여 문학·예술론을 구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연>에 관해서는 상세하게 논해져 오지 않았다.⁹⁾

5) 우스이 요시미(臼井吉見)는 <상실론>(想實論)을 둘러싼 거대논쟁이었던 쓰보우치 쇼요와 모리 오가이 사이의 <물이상논쟁>에 대해, 이 문제가 실제 『소설신수』의 작가 쇼요와 『소설총론』의 작가 후타바테이 시메이 사이의 논쟁으로 승화되었어야 할 테마라고 지적하고 있다.(『近代文學論爭 上』, 筑摩書房, 1981, 3-9頁 참고)

6) 山田博光『民友社周辺の文學論爭』(『苦小牧駒澤短大紀要』, 1965. 12), 52頁.

그는 또한 이곳에서 <소설론략논쟁>을 언급하며 ‘실제파와 이상파의 문제는 메이지 20년대 문학계의 중심적 과제의 하나’라고 부연하고 있다.

7) 小川武敏『裸蝴蝶論爭から文學と自然論爭へ—想實論の一環として—』(明治大學文學部紀要『文芸研究』第38号, 1978), 82頁.

8) 이와모토 켄치의 문학론이 편협한 도덕관념에 입각하고 있다는 주장은 그의 문학론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논문에서 보여진다. 예를 들면, 小川武敏『裸蝴蝶論爭から文學と自然論爭へ—想實論の一環として—』(81頁), 山田博光『民友社周辺の文學論爭』(『苦小牧駒澤短大紀要』, 1965. 12, 48頁), 千葉眞郎『文學と自然論爭について』(大正大學國文學會『國文學試論』第1, 6頁), 井上輝子『巖本善治の文學論』(『文學』, 1969. 10, 107頁), 十川信介『文學と自然—想實論をめぐって』(『日本近代文學』, 1967. 11, 2頁), 小倉齊『文學と自然論爭における鷗外』(『文學と自然』ヲ讀ム)의殘した課題』(『淑徳國文』第25, 1983. 12, 45頁) 등의 논문을 들 수 있다.

9) 『여학잡지』에서 ‘자연’이라는 개념은 단지 본 논쟁들에서 뿐만 아니라, 예술론(『美術論』, 『美術』, 『繪畫に於ける國粹保存主義』 등) 및 소설론(『小説論』, 『小説家の着眼』 등)이나 가정론·남녀교제론(『男女交際論』, 『日本の家族』, 『姦淫の空氣、不純潔の空氣』 등)에 이르기까지 그의 논리를 성립시키는 중심개념이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그의 문학론, 예술론, 여성론, 가정론을 횡단하여 산재되어 있는 ‘자연’이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문학과 자연 논쟁> <소설론략논쟁>에 나타난 이와모토 켄치의 문학예술관을 재고하기로 한다. 그래서 1890년 전후 <상실론>(想實論)이 가지는 문학사적 의미를 분명히 하는데 본론의 목적이 있다.

2. <문학과 자연논쟁> · <소설론략논쟁>과 <상실론>(想實論)의 전개

일본근대문학사에서 본격적 문학논쟁의 시발점이 되었던 <문학과 자연논쟁> · <소설론략논쟁>은 이미 지적 하였듯이, 2개월 정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여학잡지』를 중심무대로 하여 전개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문학”의 개념 문제는 물론, 문예사조에 대한 각 논쟁자의 입장과 문학의 역할에 대한 폭넓은 의견이 개진되어 문학적 담론의 폭과 깊이를 넓혀 갔다.

먼저 <문학과 자연논쟁>은 이와모토 켄치가 「고쿠민노토모 제48호 문학과 자연」(國民之友第四十八号 文學と自然)이란 평론에서 『고쿠민노토모』(國民之友 제48호에 실린 평론¹⁰⁾에 반박하는 형태로 시작되어, 오가이가 다시 이와모토의 주장을 비판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최대의 문학은 자연 그대로 자연을 베껴 낸 것이다.

극미(極美)의 예술은 결코 부덕(不德)을 수반할 수 없다.

그런데 실제로 추한 것도 이를 베끼면 아름답게 된다, 이를 아름답게 하는 바 즉 문학예술이 장점으로 하는 바라고 하는 자가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는 크게 그릇된 것이라 믿는다. 원래 실제로 없는 것을 어떻게 제조(창조-인용자 주)하려고 하는가, 만약에 제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일시 가설적(假設的)인 것, 도저히 영속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의 지식은 죄다 자연으로부터 발(發)한다. 사람의 덕(德)도 모두 자연으로부터 길러진다. 사람의 미(美)만이 어찌 이것으로부터 오지 않겠는가.¹¹⁾

여기서 전자의 ‘최대의 문학은 자연 그대로 자연을 베껴 낸 것’이라는 주장은 도쿠토미 소호의 평론 중, 당시의 ‘문장’이 ‘미언완사’(微言婉辭)로 흐르고 있는데 이는 ‘언론부자유 때문에 제조’되었다는 논리에 반박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극미(極美)의 예술은 결코 부덕(不德)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후자의 주장은 ‘천녀(賤女) 중에는 「미(美)」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가’라는 이시바시 닌게쓰의 논리에 대응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와모토의 이러한 논리는 ‘최대(最大)의 문학’을 가지고 ‘극미(極美)의 예술(美術)」에 대응시키는 것이 그릇되었다는 것은 명백하다¹²⁾라는 식으로 오가이로부터 그 논리의 모순을 공격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오가이는 <문학> 개념의 분류¹³⁾, ‘미(美)적인

10) 『고쿠민노토모』(國民之友) 제48호에 실린 두 평론은 다음과 같다.

徳富蘇峰「言論の不自由と文學の發達」, 局外生(石橋忍月)「時事新報と女學雜誌に質す」

11) 岩本善治「國民之友第四十八号文學と自然」(『女學雜誌』159号, 1889. 4. 27), 10-11頁.

12) 森鷗外「『文學と自然』ヲ讀ム」(『國民之友』, 1889. 5. 11), 19頁.

13) 모리 오가이는 여기서 이와모토의 문학개념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하며 당시 문학개념을 ‘미(美)를 그 ‘성질’로 하는 ‘미문학’(美文學)과 ‘진(眞)을 그 ‘성질’로 하는 ‘과문학’(科文學)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논점은 인문과학 전반을 의미하였던 당시의 <문학>개념을 오늘날의

것으로서의 '상(想, 이데아)'의 존재, '미'의 '제작(Create)' 가능성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이와모토의 주장을 격렬하게 비판하게 된다.

이후, 이와모토는 오가이의 지적과 비판에 대해 수세적인 입장에서 변명과 설명을 거듭하는 형식으로 몇 번의 평론¹⁴⁾을 주고받는 과정에는 이 논쟁은 종료하게 된다. 그런데, 이와모토와 오가이 논쟁의 결과는 2개월 이후에 개시되는 <소설론략논쟁>에 그 흔적을 남기면서 새로운 양상으로 논쟁이 전개되어 간다. 예를 들면, 문학예술의 창조 가능성을 부정하며 '최대의 문학은 자연 그대로 자연을 베껴 낸 것'이라는 이와모토의 주장은 「소설론략」(小説論略, 1889. 8)에 이르러서는,

예술은 상상에 의해 제작하는 것이라고 하는 바도 혹은 자연의 미(美)를 종합하여 이를 철작(綴作)하는 것이라고 하는 바도, 혹은 저 모씨가 당당하게 나를 매도하였던 것처럼 원래 자연의 때를 완전히 태워 그 미수(美粹)를 모은 것이라고 하는 바도 그 요점은 반드시 자연 그대로, 실제 그대로를 베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다.¹⁵⁾

라는 식으로 문학예술에 있어서 '자연 그대로, 실제 그대로' 사실(寫實) 불가를 선언하며 논리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나를 매도하였던' '모씨'는 두말할 필요 없이 <문학과 자연논쟁>의 논쟁 대상이었던 오가이를 가리키고 있다. 이 인용문을 보면 언뜻, 이와모토의 주장이 오가이의 논리를 수용하여 '정반대의 입장으로 이행'¹⁶⁾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소설론략」에서 이와모토의 주장은 '소설의 이상, 실제라고 하는 것에 이르러서는 끝내 그 구별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3頁)라고 하는데 잘 나타나 있듯이,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이상과', '실제과' 구별의 불필요성을 역설하는데 있었다. 나아가 그는 이러한 논리의 연상선상에 서서, 엄격하게 소설의 기준을 설정하거나 구분을 지어 문학을 논하는 당시 비평가들을 '협애(狹隘)한 비평, 논정(論定)'(5頁)으로 간주하여 문학에 뜻을 두는 '인재를 죽이고' 있다고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이는 과도하게 논리나 이론에 편향되어 문학작품의 가치유무나 선악을 단정적으로 판단하려는 재단비평적인 자세에 대한 비판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이 이와모토가 단지 간단히 소설을 포폄(褒貶)하려는 비평가의 자세를 비난한다고 해서 그가 소설에 대한 호불호(好不好)에 대한 판단마저 유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현사회 진화의 대법(大法)에 따라, 인류 종극의 운명에 따라, 인정 지고의 희락(喜樂)에 따라서 이를 생각하면, 저 의장청결(意匠淸潔), 도념순고(道念純高)한 소설, 소설가가 바로 오래 동안 읽히지며 음미되는 바 가장 깊으며 이익되는 바 가장 크고 감화시키는 바 가장 높으며, 이를 가지고 그것의 최량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5頁)

이와모토의 궁극적 지향점은 결국, 위의 인용문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소설의 최량의 덕목으로 열거한 '의장청결, 도념순고'라는 관념은 '실제과', '이상과' 구별의 불요(不要) 주장과

<문학>개념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자세 한 것은 줄지 『실용주의 문화사조와 일본근대문학의 탄생』(보고사, 2003)의 제2장 참조.

14) 이와모토와 오가이의 논쟁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岩本善治「國民之友第四十八号文學と自然」(『女學雜誌』, 1889. 4)→森鷗外「『文學と自然』ヲ讀ム」(『國民之友』, 1889. 5)→岩本善治「國民之友第五十号に於ける『文學と自然』を讀む、を謹讀す」(『女學雜誌』, 1889. 5)→森鷗外「再び自然崇拜者に質す」(『國民之友』, 1889. 6)→岩本善治「自然崇拜者の答」(『女學雜誌』, 1889. 6)

15) 岩本善治「小説論略」(『女學雜誌』177号, 1889. 8. 31), 2頁

16) 山田博光「民友社周邊の文學論争」, 51頁.

더불어 우치다 로안 등으로부터 강하게 비판을 받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즉, 이와모토의 이와 같은 의견에 대해 우치다 로안은 이와모토의 '소설론보다 기괴한 것은 없다고 단정하고, '천박한 전후모순, 자가당착의 설'¹⁷⁾이라고 격렬하게 비난을 가하게 된다. 우치다 로안의 반박은 다기에 걸쳐 있지만,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한참 전에 예술은 자연 그대로 베껴야 한다고 말하였으면서 이번은 「실제 그대로를 베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다」라고 한 부분을 논리의 '당착'(142頁)이라고 보는 지적이다. 둘째는 이와모토가 「리얼」과 「아이디얼」의 구별이 없다(143頁)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로, 그는 '기자(이와모토-인용자 주)는 진실로 리얼과 아이디얼의 구별을 알지 못하는가'¹⁸⁾라고 힐문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한 우치다 로안의 입장은 다소 '실제파적 입장에서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고는 있지만 '실제파'와 '이상파'의 차이와 구별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셋째는 이와모토가 '최량의 소설, 소설가'를 '의장청결, 도념순교'와 연결지으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우치다 로안은 '도념순후(道念純厚), 의사청결(意思清潔)이란 책 속의 주인공의 마음인가 작자의 마음인가'라고 되물으며, 소설은 경전도 수신서도 아(146頁)님을 강조하고 있다. <소설론략논쟁>은 이후에도 이와모토와 우치다 로안을 중심으로 전개¹⁹⁾해 가지만, 주요한 대척점은 대략 위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여학잡지』를 주무대로 전개된 1889년의 <문학과 자연논쟁>과 <소설론략논쟁>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쓰보우치 쇼요의 『소설신수』의 간행이후 번성해지기 시작한 소설의 창작과 문학담론이 이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확고히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동아시아의 전통적 관습에 기초한 "문학"개념에서 인문과학의 의미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띠고 있었던 문학개념이 이러한 논쟁을 통해 '미문학'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문학개념이 이 논쟁들을 통해 서서히 그 실질적 내용을 담지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본 논쟁들은 문학이 자립적 가치를 지닌 것인지, 아니면 윤리적, 사회적 역할 속에서 자기위치를 찾아야 하는 것인지를 둘러싼 메이지시대를 일관하는 거대논쟁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위의 두 논쟁의 의의는 정치소설이나 『소설신수』를 거치면서 지식인들의 문학담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서 논쟁자체가 문학자체에 대한 사회일반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특히 문학내부의 문제로 돌아가면 '상인가' '실인가, 이와모토의 용어를 빌리면 '실제파인가' '이상파인가' 라는 문학사조의 문제가 일본문단에 전면적으로 등장하여 각각의 비평가들이 자신의 입장과 이론을 명확히 밝히며 문학자체의 문제를 내면화하는 토대가 되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적 담론을 재생산하는 문학잡지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에 두 논쟁은 본격적 문학논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일대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17) 内田魯庵「女學雜誌の小説論」(『明治文學全集 内田魯庵集』, 筑摩書房, 1978), 142頁.(초출지와 초출년은 『東京輿論新誌』, 1889. 9이다)
 18) 内田魯庵「小説論略質疑」(『明治文學全集 内田魯庵集』), 145頁.(초출지와 초출년은 『女學雜誌』, 1889. 9이다)
 19) <소설론략논쟁>은 다음과 같은 순으로 논쟁이 전개되어 갔다.
 岩本善治「小説論略」(『女學雜誌』, 1889. 8. 31)→内田魯庵「女學雜誌の小説論」(『東京輿論新誌』, 1889.9)→石橋忍月「女學雜誌社説」小説、小説家」(『國民之友』, 1889. 9. 12)→内田魯庵「小説論略質疑」(『女學雜誌』, 1889. 9. 14)→岩本善治「申し開らき條々」(『女學雜誌』, 1889. 9. 21)→内田魯庵「小説論略筆者に再問す」(『女學雜誌』, 1889. 10. 5)→岩本善治「謹んで龍背に申す」(『女學雜誌』, 1889. 10. 5)→内田魯庵「謹んで女學記者に謝辭を呈す」(『女學雜誌』, 1889. 10. 12)

3. <문학과 자연논쟁> · <소설론략논쟁>에 있어서 자연이라는 개념의 역할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문학과 자연논쟁>, <소설론략논쟁>은 거의 동시기에 있었던 문학 논쟁이었지만, 이와모토의 주장을 중심으로 보면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적어도 상이한 논리에 토대하고 있었다. 그러한 논리의 당착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로 다음과 같은 문장이다.

· 최대의 문학은 자연 그대로 자연을 베껴 낸 것이다.

극미(極美)의 예술은 결코 부덕(不德)을 수반할 수 없다(중략) 원래 실제로 없는 것을 어떻게 제조(창조-인용자 주)하려고 하는가, 만약에 제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일시 가설적(假設敵)인 것, 도저히 영속할 수 없는 것이다.(『文學と自然』)

· 그(소설의-인용자 주) 요점은 반드시 자연 그대로, 실제 그대로를 베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다. 그렇지만 소설은 예술의 하나로서 이 예술은 오로지 세상의 실체를 베끼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예술은 본래 어느 나라의 예술인가?

(『小説論略』)

이 인용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오가이와 논쟁하는 계기가 되었던 「문학과 자연」이라는 평론에서는 ‘문학’이란 ‘자연 그대로’를 베껴내는 것이며 어떠한 형태로든 ‘제조’, 즉 창조의 가능성조차 부정되고 있다. 이러한 ‘자연’의 사실(寫實)을 주장하는 이와모토의 입장이 ‘상’(想, Idee, 이데아)을 주장하며 ‘예술은 「제조」(製造, 창조-인용자 주)하는 것이다. 「미」(美)가 「자연」과 다른 점은 마치 「제조」에 있다²⁰⁾고 보는 오가이의 이상주의와 대립하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이와모토의 이러한 입장은 ‘세상에 실재하는 실제 그대로를 능숙하게 베껴내는’ 것을 ‘소설의 표준’²¹⁾으로 삼고 있었던 이와모토의 오랜 관점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위의 두 번째 인용문을 보면 <실>(實)을 주장하던 기존의 논리를 철화하고 ‘고결순선(高潔純善)의 이상(理想)소설’²²⁾을 주장하게 된다. 이러한 논리의 간극에 대해 우치다 로안은 또한 실제(實際)를 그대로 베낀 예술은 어느 나라에 있는가라고 말하였지만, 일찍이 기자(記者, 이와모토 켄치-인용자 주)는 예술은 자연 그대로를 취한다고 역설하지 않았던가? 만약에 전설(前說)을 기자의 오류라 하더라도 실체를 그대로 베낀 예술 있음을 어찌할 것인가(『小説論略』質疑, 10頁)라고 강하게 반발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문학과 자연논쟁>에서 논쟁의 또 다른 당사자로서, ‘문학과 자연’을 ‘극단 실제주의’(極端實際主義)라고 불렀던 모리 오가이는, ‘소설론략’에 이르러 ‘이상주의의 극단으로 천이(遷移)’²³⁾했다고 지적하며 ‘이상주의의 극단으로 천이하고 있는 점 손바닥을 뒤집는 것보다도 용이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논리의 일관성의 부재를 비판하고 있다.

한편 이 두 논쟁에 있어서 이와모토 주장의 입각점 중 또 다른 핵심은 ‘극미(極美)의 예술은 결

20) 森鷗外「『文學と自然』ヲ讀ム」(『國民之友』, 1889. 5).

21) 岩本善治「小説論」(『女學雜誌』83号, 1887. 11. 5), 2頁.

22) 岩本善治「申し開き條々」(『女學雜誌』180号, 1889. 9. 21), 7頁.

23) 森鷗外「現代諸家の小説論を讀む」『しがらみ草紙』第2号, 12頁.

코 부덕(不德)을 수반할 수 없다'라든가 '「진(眞)과 「선(善)과 「미(美)는(중략) 모두 혼전동일체(渾全同一體)이지 않을 수 없다²⁴⁾'라든가, 나아가 '의장청결, 도념순후'라는 문장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선미(善美) 유일주의'²⁵⁾를 주창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바로 이와모토가 「소설론략」에서 '인정(人情)소설'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커다란 상상, 높은 이상, 비상(非常)한 구조'를 가지는 '이상소설'을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문학과 자연논쟁><소설론략논쟁>에서 이와모토의 태도를 단지 이렇게 '구래(旧來)의 권선징악적, 공리주의적 문학관으로부터 빠져나와 있지 않은'²⁶⁾, 더구나 사실주의와 이상주의의 양극을 극단적으로 횡단하고 있다고만 단정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사실주의에서 '이상주의'로 일변한 것처럼 보이는 위의 평론은 어디까지나 이와모토의 표현상의 문제이고 입론(立論)의 근거에 있어서는 두 평론 사이에 그다지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문학과 자연」이라는 평론의 제목이 시사하듯이, 그의 문학·예술론의 골간을 이루고 있는 <자연>이라는 개념, 또는 <자연>과 <문학>의 관련성으로부터 보면, 그 두 평론의 차이는 그다지 없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소설론략논쟁>시 '실제파'를 부정하고 자신의 논리의 근거로서 제기하고 있는 곳을 보도록 한다.

나는 말하기를 중국에 이르면 자연계의 실제(實際)가 모두 아름다운 것으로 보여짐에 틀림없다. 단 지금의 사람들은 그 눈으로 이것을 죄다 총관(惣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자연계 중에 발견한 미(美)를 종합(綜合)하고 이것을 꿰매어 만든 사진(寫眞)하여 그래서 예술이 된다.(중략) 저 마루야마 오요(丸山応舉, 에도시대 중기의 화가-인용자 주)가 실제를 그대로 베꼈다고 하는 것은 크게 다르다. 그가 어떠한 물품(物品)이라도 그대로 베껴 예술이라고 한 것은 아니다, 그가 그대로 베낀 바의 것은 즉 그가 예술상에 있어서 아름답다고 관득(觀得)한 바의 것이다. (「申し開らき條々」)

여기에서 문학이 '자연 그대로 실제 그대로를 베낀' 것이 아니라는 이유는 '자연' 그대로는 문학의 추구대상인 '미'가 아니기 때문이다. 단 이러한 '자연'에 감춰져 있는 '미'를 찾아내어 그것을 '종합(綜合)하고 '꿰매어 만든' 것이 바로 '예술'인 것이다. 이는 자연 자체는 미(美), 즉 예술이 아니라는 논조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연'과 문학, 또는 '자연'과 '미'의 관계성은 쇼요·오가이에 의해 각각 '극실파'(極實派), '극단실체주의'라고 불리었던 「문학과 자연」이라는 평론의 기본논조이기도 하였다.

- (자연의-인용자 주) 기계적 운동과 음(音)을 베끼고 있을 뿐, 아직 신운(神韻)을 베꼈다고 할 수 없다, 신운은 자연의 가장 미적인 스이(粹)가 아니겠는가 (「文學と自然」)
- 만약 안계(眼界)를 점차 광활치밀(廣濶緻密)하게 하면 그 자연을 통관(洞觀)하는 미안식(美眼識) 또한 점점 고상우려(高尚優麗)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내가 말하는 자연에는 원래 자연의 정신을 포함하고 있다. (「文學と自然」を読む、を謹讀す)

24) 岩本善治「國民之友第五十号に於ける『文學と自然』を読む、を謹讀す」(『女學雜誌』162号, 1889. 5).

25) 坪内逍遙「明治22年文學界(重に小説界)の風潮」(『讀賣新聞』, 1890. 1. 14).

26) 小倉齊「『文學と自然』論争における鷗外—『文學と自然』ヲ讀ム」の殘した課題一」(『淑徳國文』第25号, 1983. 12), 45頁.

이 인용문을 보면 이와모토가 말하는 ‘자연’은 ‘외형의 자연’인 ‘네이처’의 의미뿐만 아니라, 예술적으로 볼 때 ‘가장 아름답다’고 간주된 ‘스이(粹), ‘신운(神韻), ‘정신(精神)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그래서 그가 「문학과 자연」의 대명제인 ‘최대의 문학은 자연 그대로 자연을 베껴낸 것’이라고 할 때, 그 ‘자연’은 ‘실제’로서의 ‘자연’이 아니라 자연의 가장 ‘미적인 것’이라고 본 ‘스이(粹), ‘신운(神韻), ‘정신(精神)을 의미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과 자연논쟁>에서 모리 오가이의 격렬한 비판을 받고 그것에 답한 「「문학과 자연」을 읽는다, 를 근독(謹讀)한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취미상 미학미관(美學美觀)을 가지고 예술을 제작(製作, 크리에이트)한다는 것 원래 있을 수 있다. 생각건대 인간 아직 완전하지 않고 단지 만물계에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미를 처리할 수 있을 때, 이 분산해 있는 미원(美源)을 꿰매 합하고, 조화시켜 그래서 한 폭의 그림, 한편의 시로 완성하는 것이다. 이를 예술계의 제작(製作)이라 한다.

이 인용문을 보면 이와모토는 ‘제작(크리에이트)’이라는 용어를 통해 분명히 제시하고 있듯이 예술의 창조의 가능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곳에서 그가 자연을 포착하는 방식은 「소설론략」과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위와 같은 평론에서 ‘모방’이 ‘Imitation’이라는 의미라면 ‘이와 같은 모방은 불가’함을 선언하고 있는 곳을 보면, 이와모토가 <문학과 자연논쟁>과 관련된 평론을 쓰고 있을 때에도 그 실제적인 방향에 있어서는 ‘사실(모방)을 배격하고 오히려 예술의 창조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창조’가 갖는 의미이다. 즉, 오가이의 경우는 예술에서 ‘미란 예술가의 ‘정신’상의 ‘상(想, 이데아)에 의한 창조이며 자연으로부터 직접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와모토는 예술에서 예술가의 ‘제작’‘창조’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란 변함없이 ‘자연’으로부터 오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자연계 중에 발견한 미(美)를 종합하고 이것을 꿰매어 만들어 사진(寫眞)하여 그래서 예술이 된다.’나 ‘이와 같은 차별(사람에 따라서 미를 포착하는 능력의 차이-인용자 주)은 어찌 천지에 미의 증감이 있기 때문이겠는가’라는 곳이나 ‘천지(天地)는 시간에 따라서 그 미를 증감하는 일 없다(중략)자연의 미원(美源)은 의연하게 존재하는 것이다.’이라는 문장이 보여주듯이 그 ‘미란 자연 속에 내재되어 있어서 작가는 단지 그것을 ‘발견’하고 ‘꿰매어 합해 ‘사진’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모토의 ‘자연’에 있어서 ‘스이’나 ‘정신’, 그리고 ‘신운’이라는 것이 언제나 ‘자연’ 안에서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그것은 모리 오가이의 ‘상(이데아)’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히려 ‘자연’ 안에 존재하는 ‘스이’나 ‘정신’, 그리고 ‘신운’이라는 개념은 쓰보우치 쇼요의 ‘묘상(妙想)·진리론’, 후타바테이 시메이(二葉亭四述)의 ‘허상(虛構)·진리에 가까운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상 두 논쟁 사이에 보이는 이와모토의 모순은 지금까지 논의되어 왔듯이 ‘실(實)인가 ‘상(想)인가’라는 ‘상실(想實)대립’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주창하고 있는 표현과 그 근거가 되는 논리와의 모순이다. 이와 같이 위의 두 논쟁을 통해 문학예술에서 ‘사실’을 부정하고 ‘이상주의’에 기울고 있었던 이와모토가 이론상 이와 같은 미숙함을 드러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가장 커다란 이유는 ‘천하 어느 곳에 ‘자연’보다 뛰어난 대교사(大教師) 대이상(大理想) 있겠는가’라고 말하듯이 자연에 대한 끊임없는 ‘신뢰’에 의한 것이었다.

4. 이와모토의 문학예술론과 이상주의

지금까지 보아 왔듯이, 이와모토가 문학예술론을 기술할 때 그 이론적 구축은 대부분의 경우 <자연>이라는 매체를 통해서였다. 1887년부터 쓰기 시작한 소설론, 특히 예술론을 보면 그곳에서도 이미 그의 논조는 <자연>이라는 개념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본장에서는 이와모토의 소설·예술론에서 <자연>이라는 개념의 의미영역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과 ‘예술’의 관계성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고찰해 본다.

앞에서 보았듯이 이와모토의 ‘자연’은 ‘스이’나 ‘신운’, 그리고 ‘정신’이라는 요소가 포함된 것을 전제로 한 ‘네이처’이었다. 그러나 이와모토의 ‘자연’이 처음부터 이와 같은 이원론적 개념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가 ‘스이’나 ‘신운’, 그리고 ‘정신’을 내포한 ‘네이처’라는 개념을 획득하게 된 것은 쓰보우치 쇼요의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모토가 「문학과 자연」이라는 평론에서 자신이 수년전 ‘자연의 있는 그대로를 베끼다’라고 연설한 것에 대해 쇼요가 비판을 가한 점을 상기하면서 자신이 말하는 ‘자연’은 결코 자연의 ‘기계적 운동과 음(音)’을 베끼라는 것이 아니고 ‘자연의 가장 미적인 스이(粹)인 ‘신운’(神韻)을 베끼는 것이라고 부연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단지 외형으로서의 ‘자연 그대로’는 결코 ‘예술’로서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인데, 이는 「소설론(제2)」에서 ‘소설은’ 결국 이 자연의 모습에 따라서 자연의 있는 그대로를 베끼는 것보다 최량(最良)의 방책은 없²⁷⁾’다는 이와모토의 논리에 대해 쇼요가 비판을 가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소설신수』이후 발표된 쇼요의 신문·잡지 등의 평론을 보면 이러한 견해가 두드러져 있다. 즉 ‘예술의 요(要)는 그 물체 그대로를 모의(模擬)하는 것이 아니며 물체의 정신을 모의하는데 있다²⁸⁾’라며 쇼요는 이와모토의 ‘자연 그대로’라는 말에 대해서도 ‘사진(寫眞)적 또는 ‘모의주의’라고 칭하며 그에 대해 실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실제 이러한 비판 이전의 이와모토의 문학·예술론을 보면 「문학과 자연」의 ‘자연’개념과는 사뭇 거리가 있다. ‘자연의 모습에 따라서 자연의 있는 그대로를 베끼다’고 한 「소설론」과 같은 시기에 쓰여진 평론들을 보면 역시 ‘자연’을 통해 ‘미’나 ‘예술’ 그리고 ‘문학’을 설명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연’은 ‘정신’이나 ‘스이’, 그리고 ‘신운’을 포함한 ‘네이처’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즉, ‘예술론’(美術論)을 보면 ‘변화하는 자연의 ‘광경’ 그 자체를 ‘천지계(天地界) 내에 있어서 극히 아름다운 쪽의 그림²⁹⁾’으로 비유하고, ‘음악·회화·조각’, ‘시가문장’과 같은 ‘예술’을 ‘천연의 호풍경’의 모사(模寫)와 거의 동일하게 보고 있다. 그런데 예술을 말할 때, ‘천연의 호풍경’을 이 평론의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은 단지 소재의 측면에서만은 아니다. 그곳에는 ‘일상’의 ‘이익을 다투고 업(業)을 세우는 활세계(活世界)를 ‘유형비근’(有形卑近)이라 하고, 자연의 ‘호풍경’을 ‘무형고상(無形高尚)이라고 하는 가치부여를 통해 ‘자연’과 ‘예술’개념의 접목도 시도되고 있다

27) 岩本善治「小説論(第二)」(『女學雜誌』83号, 1887. 11. 5)

28) 坪内逍遙「美とは何ぞや」(石田忠彦『坪内逍遙研究』의 「附文學論初出資料」, 九州大學出版會, 1888), 374頁.

29) 岩本善治「美術論」(『女學雜誌』73号, 1887. 8)

특히 이곳에서는 ‘자연’이 인간에게 ‘고상(高尚)한 소망’을 만족시키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식은 ‘자연’을 매개로 한 인간정신의 ‘고상성’을 문학·예술의 중심에 자리 매기려는 의도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틀에 토대한 문학·예술론의 구축은 우선 ‘자연’과 ‘일상·도시’에 각각 ‘예술’, ‘기술’을 접목시켜, 그 고유의 예술론을 전개시켜 가는 형태를 취하였다. 그래서 이와모토에게 있어서 ‘예술’이란 ‘기술’의 대개념(對概念)임과 동시에 ‘산수(山水)의 호풍경(好風景)은 자연히 예술의 묘처(妙處)를 드러내고 번화(繁華)·열담(熱沓)의 도시는 스스로 기술의 뛰어난 공간을 가리킨다(「美術論」)라고 하듯이 ‘자연’과 친근성이 있는 개념이기도 하였다. 그에게 있어서의 ‘자연’은 ‘의식주’라는 ‘육체적 갈망’을 채우는 역할을 떠맡고 있는 일상적인 ‘도시’와 대립하고 있듯이, 그가 말하는 ‘예술’은 ‘기술’과 대립해 ‘고상한 소망’을 충족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셈이다.³⁰⁾

그러나 ‘고상한 소망’을 충족시키는 ‘천지(天地)의 호풍경(好風景)’이라는 형태로 포착하였던 ‘자연’ 개념은 <문학과 자연논쟁> 무렵부터 ‘정신’, ‘신운’, ‘스이’라는 요소를 내포한 개념으로 변하게 된다. 이때의 ‘자연’은 「진」(眞)과 「선」(善)과 「미」(美)는 (중략) 모두 혼전동일체이지 않을 수 없다’는 논리가 보여 주듯이 이와모토는 ‘자연’으로부터 인간의 도구, ‘국가조직’ ‘이학, 철학’ ‘논리, 법도’ 등 모든 것이 ‘자연의 지시, 자연에 대한 직관에 의해’ ‘자연으로부터 교도(敎道)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그의 문학예술론 곳곳에 인용되어 있는 에머슨(Emerson Ralph Waldo)의 논리도 상당히 받아들인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흥미 깊은 것은 이와모토가 <문학과 자연논쟁><소설론락논쟁>을 행할 당시, 그의 논리는 쇼요의 비판이래로 ‘자연’개념이 ‘천연의 호풍경’을 의미하는 외면적 자연으로부터 ‘정신 스이 신운’을 함유한 것으로 전환하는데, 이에 수반하여 그의 논리는 쓰보우치 쇼요나 후타바테이 시메이와는 달리 ‘이상주의’로 나아갔다는 점이다. 이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정신, 스이, 신운’이라는 개념이 이 당시의 쇼요나 후타바테이의 개념과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상파’의 자세를 취하게 된 것은 바로 ‘자연’에 의미부여하고 있었던 탈속(脫俗)적 취향이라는 역할 때문이라 할 수 있다.

5. 결 론

이상 고찰해 보았듯이, <문학과 자연><소설론락>논쟁에서 논쟁의 한축이었던 이와모토의 평론에 대해 ‘실제파’에서 ‘이상파’로 동요하고 있다고 비판적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 논쟁들 전후의 이와모토의 평론, 특히 그의 문학예술론 나아가 가정론·남녀교제론의 핵심어가 되고 있는 ‘자연’이라는 개념에 토대해 보면 이 두 논쟁 사이를 전후하여 그의 문학관념은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와모토에게 있어서 상실(想實)의 대립은 이 두 논쟁사이에 가로놓여 있었다기보다는, 오히려 <문학과 자연논쟁> 이전 시점인 1889년 이전의 평론과 두 논쟁사이의 문제였다. 따라서 이 두 논쟁기에 이와모토의 문학관이 ‘실제파’에서 ‘이상파’로 일변했다

30) 이와모토의 초기 문학예술론은 문학예술을 주로 ‘고상성’과 ‘자연’에 관한 관점과 결부시켜 설명하고 있는 곳에 그 고유의 특징이 있다. 그런데 이 ‘고상성’은 단지 문학예술론 뿐만 아니라 『여학잡지』의 본령이라 할 수 있는 가정론·남녀교제론의 키워드이기도 하다. 한편 이 때 ‘고상성’이 의미하는 바는 일본이 도달해야 할 바람직스러운 문명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학잡지』의 문학론을 ‘협소한 도덕’의 반영이라고 간단히 규정해 버리는 것은 극히 단선적인 평가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 「<芸術>における「高尚性」という領分」, 筑波大學近代文學研究會編『明治期雜誌メディアにみる<文學>』, 2000. 6 참고)

는 비난은 재고의 여지를 남기는 일면적 고찰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1889년 이전의 평론과 두 논쟁사이에 이와모토의 문학관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의 문예론의 핵심어였던 ‘자연’에 대한 해석에 기인하고 있다. 애초 이와모토에게 있어서 자연은 ‘네이처’를 의미하는 ‘천연의 풍경’으로 쓰여져 그것자체가 바로 현실과 구분되는 ‘미’를 포함한 개념이었다. 그런데 이때의 ‘자연’은 현실적 공간인 ‘도시’와 구분되어 인간의 정신적 ‘고상성을 충족시키는 대상이었다. 한편 <문학과 자연>논쟁 무렵부터 이와모토에게 있어서 ‘자연’은 ‘스이’나 ‘정신’, 그리고 ‘신운’을 내포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는 현실내지 자연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은 문학예술일 수 없다는 쇼요의 비판에 의해 수정된 논리라 할 수 있다. 이와모토는 이를 계기로 하여 예술에 있어서 상상, 이상, 창조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그의 문학론을 전개해 가게 되는데, 이점이 쇼요나 후타바테이의 ‘진리·묘상론’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곳이기도 하다.

한편 이와모토에게 있어서 문학예술론의 토대가 되었던 ‘자연’이라는 개념은 위의 어느 경우든 비속한 현실에 집착하는 인간의 추악한 탐욕을 순화시키는 역할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는 본질적으로는 이상주의적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자연’으로 표상되는 그의 이상이란 바로 도래해야 할 ‘근대성’의 존재를 의미하기도 하고 인간이 도달해야 할 이상적, 도덕적 세계이기도 하였다.

더구나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문학과 자연><소설론략>논쟁은 ‘실제파’의 입장을 취하든 ‘이상파’의 입장을 취하든, 아니면 문학의 자립성을 강조하든 사회적교육적 공리성을 강조하든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막 태동하기 시작한 근대문학이 논쟁적 담론을 통해 사회의 저변을 넓혀가는 커다란 계기가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는 문학의 역사를 순수예술로서 근대문학이 자신의 자율성을 확보해 가는 과정으로서가 아니라, 문학의 제도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격렬한 논쟁, 특히 지식엘리트들의 문학논쟁이야말로 문학이 사회일반의 관심을 흡입하여 자신의 영역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參考文獻】

- 정 병 호(2003) 『실용주의 문화사조와 일본근대문예론의 탄생』, 보고사, 제2장
- 石田忠彦(1888) 『坪内逍遙研究』, 九州大學出版會 374頁
- 井上輝子(1969) 「巖本善治の文學論」 『文學』, 107頁
- 岩本善治(1889) 「國民之友第五十号に於ける『文學と自然』を読む、を謹讀す」 『女學雜誌』162号
- 岩本善治(1889) 「國民之友第四十八号文學と自然」 『女學雜誌』159号, 10-11頁
- 岩本善治(1887) 「小説論」 『女學雜誌』83号 2頁
- 岩本善治(1889) 「小説論略」 『女學雜誌』177号, 2頁
- 岩本善治(1887) 「美術論」 『女學雜誌』73号
- 岩本善治(1889) 「申し開らき條々」 『女學雜誌』180号, 7頁
- 臼井吉見(1981) 『近代文學論争 上』, 筑摩書房 3-9頁
- 内田魯庵(1889) 「小説論略質疑」 『明治文學全集 内田魯庵集』, 筑摩書房, 145頁
- 内田魯庵(1889) 「女學雜誌の小説論」 『明治文學全集 内田魯庵集』, 筑摩書房, 142頁
- 小川武敏(1978) 「裸蝴蝶論争から文學と自然論争へ—想實論の一環として—」 明治大學文學部紀要 『文芸研究』第38号, 82頁
- 小 倉 齊(1983) 「『文學と自然』論争における鷗外—『文學と自然』ヲ讀ム』の殘した課題」

『淑徳國文』第25, 45頁

- ・越智治雄(1975)『近代文學の誕生』, 講談社, 195頁
- ・片岡哲(1976)「内田魯庵・その文學意識の出発点—『小説論略』論争を中心として」, 『緑岡詞林』3号, 35頁
- ・千葉眞郎「『文學と自然』論争について」(大正大學國文學會『國文學試論』第1, 6頁)
- ・鄭炳浩「<芸術>における「高尚性」という領分」, 筑波大學近代文學研究會編『明治期雑誌メディアにみる<文學>』
- ・坪内逍遙(1890)「明治22年文學界(重に小説界)の風潮」『讀賣新聞』
- ・坪内逍遙(1886)「美とは何ぞや」
- ・十川信介(1967)「文學と自然—想實論をめぐる」『日本近代文學』第7集 1頁
- ・前田愛(1969)「近世から近代へ—愛山・透谷の文學史をめぐる—」『講座日本文學』, 三省堂, 4頁
- ・森鷗外(1889)「『文學と自然』ヲ讀ム」『國民之友』, 19頁
- ・山田博光(1965)「民友社周辺の文學論争」『苦小牧駒澤短大紀要』, 51,52頁
- ・『女學雜誌』의 제 평론 「美術論」「美術」「繪畫」に於ける國粹保存主義」「小説論」「小説家の着眼」「男女交際論」「日本の家族」「姦淫の空氣、不純潔の空氣」

要 旨

本論文は、1889年に『女學雜誌』を舞台とした<「文學と自然」論争>、<「小説論略」論争>をとおして、その論争の論点と日本文學史におけるその文學論争の意味を追究したものである。

日本近代文學史において、明治20年代はいわゆる「論争の季節」として認識されてきた。この明治20年代の文學論争は、芸術的文學觀と功利主義的文學觀の對立、あるいは想實論争というかたちで議論されてきた。明治20年代の文學論争をこのような眼差しからみた場合、この文學論争の導火線となったのが、1889年『女學雜誌』を舞台とした<「文學と自然」論争><「小説論略」論争>である。ここで<「文學と自然」論争>は岩本善治と森鷗外の間で、<「小説論略」論争>は岩本善治と内田魯庵の間で、「リアル」と「アイデアル」の問題と文學における倫理性の問題をテーマにし議論が進められた。

この論争の一方の軸であった岩本善治の場合は、この論争をとおして「實際派」から「理想派」へと一変したと、その論理の矛盾が非難されてきた。しかし、彼の文學論を彼の文學芸術論のキーワードである「自然」という概念からみた場合、彼の文學觀はそれほど変わってはいない。この二つの論争は、政治小説や『小説神髓』の刊行以降、知識人たちの文學に関する言説の活發化に伴い、文學そのものを巡る社會一般の關心を高めさせる契機を形成したといえる。とりわけ、文學の問題からすると、「想」であるか「實」であるか、すなわち「寫實」なのか「理想」なのかという文學思潮の問題が日本文學界に全面的に登場し、それぞれの批評家が自分の立場と論理を提示する、本格的な文學論争の端緒を提供した一大事件と評価できる。

キーワード：文學と自然論争、小説論略論争、岩本善治、森鷗外、
内田魯庵、日本文學史、文學論争

투 고 : 2004. 5. 31
1차 심사: 2004. 6. 12
2차 심사: 2004. 7. 3

住 所 :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電 話 : (자택) 062-972-4669 (휴대전화) 016-205-9631
E-mail : bhjung@chonnam.ac.kr

K C I